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 9월 발표 자료〉



미국 노동부, “모두를 위한 좋은 일자리” 2011-2016년 전략계획 발표

미국 노동부는 2011-2016년의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다섯 가지 전략계획은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를 위한 좋은 일자리(Good jobs for everyone)” 마련이 궁극적 목표이다. 연도별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개선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 회계연도 2011-2016년도 중 실시할 예정인 미국 노동부의 5대 전략계획은 다음과 같다.

- 좋은 일자리, 공정경쟁을 위한 준비
-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
- 양질의 일과 삶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
- 보건혜택 및 안정된 수입기반 마련
- 근로자 및 가족의 경제상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

■ 이 중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5대 전략계획의 두 번째 과제로서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 담당 기관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미국 광산안전보건청(MSHA), 임금감시국(WHD: Wage and Hour Division)에서 담당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취약 노동자계층과 고위험 산업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독과 지원활동의 결합을 통해 관련법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 - 광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

- 미국 광산안전보건청은 개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의무적으로 매년 실시하여 주요 재해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고 있으며, 광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기타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비숙련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와 함께 Rules to Live By-광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 - 농업 종사자·미성년 근로자 보호

- 임금감시국(WHD)은 농업 및 미성년 노동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취약한 노동자 계층 보

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연방 미성년자 고용 규칙에 따라 미성년 노동자 및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 - 기타 집중 관리대상

- 중대위반사례, 상습적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
 - 중대위반단속프로그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간과하고 상습적·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였다.
 - OSHA Listens: 안전보건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현장 근로자의 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있다. 재해발생률이 높은 라틴계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며, 국가 중점 프로그램(National Emphasis Programs)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업무관련 상해 및 질병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강화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에 대한 시설점검 절차 마련

〈출처〉 http://www.dol.gov/_Sec/stratplan/



싱가포르 사업장 안전보건자문위원회(WSHCOUNCIL), 피로관리에 대한 지침 발표

싱가포르 WSHCOUNCIL(사업장 안전보건자문위원회)는 피로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피로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업주가 피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 피로에 대한 이해

- 피로로 인한 수면 부족은 판단력 저하, 상해율 증가, 실수의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 집중력이 저하되어 산재의 발생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결근율 및 이직률을 높여 결과적으로 사업장 전반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로의 원인은 갑작스런 업무량의 증가, 업무에 필요한 기기 및 장비의 부족, 인력 부족 등 조직적(organizational) 요인과 조명시설, 작업온도 등 근무환경적 요인, 근무자 개개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사회적 요인 등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 위험성 평가를 활용한 피로 관리

- 다수 근로자의 피로감은 사업장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활동과 관련된 피로요인을 분석해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제시한 피로 관련 위험분석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 피로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를 찾아냄
- 각 위험요소의 심각성을 분석
- 찾아낸 위험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및 질병의 가능성을 분석
- 특정 활동의 위험 정도를 분석

■ 업무 중 발생하는 피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통제하는 방법

-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실내온도 조절기, 눈부심 방지창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 휴게실 마련 등의 대책이 강구되었다. 복잡한 업무는 되도록 낮에 처리하고 야간 교대근무를 최소화 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야간근무 또는 장시간 근무 근로자에게는 교통편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각 업무별 재설계(Job Redesign)와 함께 피로감 계산기, 운전자

감시 센서(눈의 움직임 감지) 등 피로관리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싱가포르 정부에서 제시한 피로관리 요령은 다음과 같다.

- 8시간의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대근무자의 경우 소화기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하루 30분 정도의 운동을 반드시 실시하고, 업무 중 휴식시간을 내어 쉬도록 하고 동료와 상호작용을 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

〈출처〉 <https://www.wshc.sg/wps/portal/announcement?action=detailedAnnouncement&AnnouncementID=AN2010092400531>

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